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축사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수상단체 대표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민과 내외 귀빈 여러분,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외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여러분은 우리 인류에게 큰 희망을 주신 분들입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신장, 그리고 환경보호 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우리는 보다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도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햇볕정책과 6·15공동선언은 적대와 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게 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보를 이끌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

며, 이번 회의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인류 역사는 전쟁과 지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면서도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 동북아시아에도 과거사가 남긴 불신과 갈등요인들로 인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거와 같이 제국주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진보이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도 그때그때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이제 누구도 화해와 협력의 큰 물줄기를 되돌려 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하루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북을 왕래하고 있고,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남북 간 교역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3년째 접어든 개성공단은 시범단지의 성공적인 가동에 이어 올해 안에 100만 평에 이르는 1단계 사업이 분양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달 초에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는 북한의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등으로 협력 분야를 다양화하고 그 방식도 호혜적인 단계로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도 남북관계를 한층 더 진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간 신뢰 구축,

그리고 남북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고,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와 경륜이 높으신 참석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곳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26년 전 광주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고, 목숨이 오가는 극한상황에서도 도덕적 시민의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번 회의가 이러한 5·18 광주정신을 세계 속에 기리고, 평화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더욱 굳건히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